

모의논술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및 해설

인문·사회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1]

다음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라.
(800~1,000자, 40% 배점)

[가] 우리는 생산의 문화, 끊임없는 행동의 문화, 강제적 자기 최적화, 지속적 분주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식 기술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지만 시간이 남으면 당장 다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느긋해지기엔커녕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한 바처럼 “기술로 시간을 버는 만큼 우리의 기대와 요구는 더 늘어”날 뿐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몇 주씩 배를 타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고 단숨에 오지로 날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여유 있게 쓰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여행을 한다. 더 빨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소통하고 있다. 남은 시간을 여유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긴장, 다른 일에 활용한다.

— 스페냐 플라스켈러,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나]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노동은 벌이었다. 죄 많은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하며, 김을 매고 밭을 갈고 수확을 하다가 지치고 탈진하여 구원이 약속된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아퀴는 말했다. 그러나 그 사이 노동의 의미는 엄청나게 변했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노동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

게 된 이후 우리는 일을 고통이 아닌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해석하며 점점 많은 이들이 노동을 진정한 향락으로 생각한다.
— 스페냐 플라스켈러,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별과 인종, 나이를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이 연결됨으로써 조직이나 국경을 넘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략…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즉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이 물질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비쿼터스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역할 등은 정보 통신 기술이 가져온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라] 우렁타게 토하난 기덕(汽笛) 소리에
남대문(南大門)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빨리 부난 바람의 형세 갖추니
날개 가던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늘근이와 똥은이 석겨 안졌고
우리네와 외국인 갖터 탓스나
내외런소(內外親疎) 다 갖터 익히 디니니
도고마한 딘 세상 털노 일윳네

— 최남선, 『경부 털도 노래[京釜鐵道歌]』, 『고등학교 문학 II』 교과서

[문항2]

[다]의 표를 활용하여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 대조하고, [라], [마]의 제시문과 [바]의 그래프를 토대로 영국 산업혁명 후기 삶의 질에 대해 추론하라. (1,300~1,500자, 60% 배점)

[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조건이 필수적이다.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경제 성장은 우리의 절대적 빈곤을 줄여 주었으며, 평균 수명과 여가 기회를 늘리고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등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과 문자 해독률이 높게 나타나며, 영아 사망률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나]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느끼는 생활 수준과 차이가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주부의 가사 노동이다. 주부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외식을 하고, 놀이방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또한,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거래를 뜻하는 지하 경제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환경 오염 발생이나, 범죄, 교통사고와 같이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복지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관련 지표 비교

인간개발지수 순위	국가	인간개발 지수	평균 수명 (세)	성인 문자 해독률 (%)	총 취학률 (%)	1인당 GDP (구매력 기준 달러)	순위
1위	노르웨이	0.971	80.5	99.0	98.6	53,433	4
2위	오스트레일리아	0.970	81.4	99.0	114.2	34,923	20
3위	아이슬란드	0.969	81.7	99.0	96.0	35,742	16
10위	일본	0.960	82.7	99.0	86.6	33,632	16
24위	홍콩	0.944	82.2	99.0	74.4	42,306	-13
26위	한국	0.937	79.2	99.0	98.5	24,801	9
92위	중국	0.772	72.9	93.3	68.7	5,383	10
182위	니제르	0.340	50.8	29.7	27.2	627	-6

출처 : UNDP, 2009 인간 개발 보고서, 2007년 통계

주 : 인간개발지수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한 지수로, 국가별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순위차'는 1인당 GDP 순위에서 인간개발지수 순위를 뺀 값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라] 최근에는 생물학적 자료인 신체적 척도, 특히 연령별 신장(height) 기록 등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신체 성장학의 진보에 따라 영양 상태와 연령별 신장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허용미이나 공장 근로자의 복지 지표로서 역사적으로 신장 기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신체 발달은 성년이 될 때까지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영양 섭취에서 기초 대사, 노동, 질병에 따른 소모분을 뺀 '순영양'에 의해 결정된다. 발육기에 순영양이 부족하면 키가 성장하는 시기를 늦춘다. 심하면 성년이 되어도 단신으로 머문다. 영양 부족 상태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했다면 성장기가 끝난 연령이 되어도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키가 자란다. 영양 상태는 식생활의 내용뿐 아니라 육체적 노동의 강도, 기후 환경, 질병에의 노출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연령별 신장과 체중, 신장의 연령별 성장속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신장 등을 측정하면 특정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영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이를 삶의 질의 한 척도로 이용한다.

— 양동휴, 「경제사 산책」

[마] 올리버 트위스트의 아홉 번째 생일에 우리는 창백하고 흉측하고 다소 키가 작은 편이며 몸둘레를 재면 분명 얼마 안 될 그런 아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타고 났는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올리버의 가슴에는 역세고 긴장한 정신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미비한 식단 덕분에 그의 기백은 몸속에서 퍼져나갈 자리가 충분했는데, 아마 그가 아홉 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이날은 그가 아홉 살 되는 날이었고, 그는 다른 두 명의 어린 신사와 함께 지하 연탄광에 갇혀 생일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들은 감히 흉악하게도 배가 고프다고 한 죄로 올리버와 함께 실컷 매질을 당한 후 수감 중이었다.

— 찰스 디킨즈,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영국)

[바] 영국 산업혁명 후기(1800년-1855년)의 실질임금과 성인남성 평균 신장의 추이



주 : 실질임금은 1751년을 100으로 설정한 지수 값이다. 신장은 24~29세 성인남성의 평균값이다.

— 리차드 스텝켈, 로테릭 플로우드, 「산업화 기간의 건강과 복지」

2. 해설

[문항1]

질문의 요구 질문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다.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추출된 논거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구는 제시문을 잘 읽고 그것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요구는 반론의 논리를 제시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논거들에 입각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은 교과서의 내용과 스베나 플라스켈러의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를 활용하였다.

제시문 읽기 [가]는 일중독 또는 노동중독을 묘사한다. 현대의 문화는 시간 절약을 강요한다. 절약된 시간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여유나 휴식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일을 위해 사용된다. 이런 기이한 현상의 동력은 기대와 요구의 끝없는 확대와 심화다. 달성한 노동의 결과에 만족치 않고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분주하게 활용해야 하며, 변화하는 외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박의 논거로 [나]는 노동의 의미 변화를 지적한다. 말하자면, 의무나 형벌에서 자아실현의 도구로의 변화다. 이런 변화는 기술 발전을 포함한 사회 발전의 결과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육체적 고난을 줄여줄 방안을 제공받았고, 중국에는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논거는 의사소통과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더 개방적이며 더 수평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그것의 예로는 새로운 소비자의 탄생이다. 생산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에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품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를 북돋는다. [라]는 근대적 발전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기차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기차 차량의 일상적 모습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세대들의 고립을 넘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노인과 젊은이가 섞이며), 국경의 제약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국인과 외국인)한다. 요컨대 새로운 문명은 이리저리한 사회적 차이를 좁혀, 결국엔 작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다.

[가]의 논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시간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 번 시간을 여유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일에 활용하는 일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박의 논리 현대의 일중독의 부정적인 면모를 밝히는 제시문 [가]의 지적은 일면적으로 옳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적절한 판단은 득과 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 [다], [라]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나]에서는 노동에 내재된 자아실현성을, [다]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새로운 가능성과 '프로슈머' 현상에서 착안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혹은 노동과 여가의 융합 가능성 등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세기간, 국가간, 문명간의 경계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라]에서는 현대의 역동적이고 소통적인 노동 행위가 새로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그밖에 더 많은 크고 작은 논거들(거시적/미시적 논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론의 논리적 일관성이다. 즉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것으로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것으로 나아가든지,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

[문항2]

질문의 요구 문제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다]의 표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대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시문 [라]와 [마] 그리고 [바]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영국의 산업혁명 후기 삶의 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 [가]와 [나]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경제 성장과 삶의 질' 단원에서 발췌하였다. [다]에서 제시된 표 역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같은 단원에서 가져왔다. 제시문 [라]는 양동휴 교수의 「경제사 산책」중 제11장 '생활 수준과 기의 역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마]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찰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 일부이다. 특히 이 작품은 영국 산업혁명 시기의 도시민과 아동들의 생활상을 잘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바]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1800~1855년 영국의 실질임금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자료들은 저명한 경제사학자들인 리처드 스텝켈과 로데릭 플로우드가 편집한 「산업화 기간의 건강과 복지」에서 수집하였으며, 본 문항에 유용하게 출제자가 편집하였다.

제시문 읽기 제시문 [가]는 삶의 질 향상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 성장을 들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한 국민 소득 증대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 감소, 평균 수명 연장, 교육 수준 향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가]와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나라의 복지 후생 수준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으며, 이 중에서 환경오염, 범죄, 교통사고 등은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소득이 반영하지 못하는 삶의 질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라]는 한 국가와 사회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보여준다. [라]에서 제시하는 척도는 연령별 신장 기록의 이용이다. 특히 신장이 삶의 질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경로로 '순영양'의 역할을 강조한다. 발육기 또는 어린 시절 영양 결핍, 육체적 노동, 질병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영양의 공급이 낮아지는 반면 영양의 수요가 많아진다. 결국 발육이 늦어져 성인기에 측정된 신장이 작아지게 된다. 결국 신장 기록은 소득, 노동, 환경 등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는 영국산업혁명기 아동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찰스 디킨즈의 소설 중 일부이다. 주인공인 올리버를 통해 당시 다수의 아동들이 육체적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가늠해 한다.

[다]의 표 해석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다]에서 제시하는 표의 정보를 정확히 끌어내는 것이다. 표는 삶의 질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1인당 GDP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연합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이다. 1인당 GDP는 제시문 [가]의 주장과 관련되며, 인간개발지수는 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취지에서 개발된 지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1인당 GDP가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순위차'는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일부 국가는 1인당 GDP 순위가 인간개발지수의 순위보다 훨씬 높고, 일부 국가는 반대의 경우임을 찾을 수 있다. 이는 1인당 GDP가 물질적인 삶의 질을 잘 반영했지만, 건강, 교육 등의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이런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영국산업혁명 후기의 삶의 질에 대한 추론 우선 [바]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1800~1855년 사이 실질임금은 증가하였고,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임금 추이는 영국 산업혁명이 물질적인 삶의 질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추이로 평가할 때 영국 산업혁명의 삶의 질은 하락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신장이 어린 시절의 영양결핍, 아동노동 그리고 질병환경에의 노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제시문 [마]의 작품을 통해 영국산업혁명 당시 아이들이 육체적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와 [마]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혁명 후기 왜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하락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성인 평균 신장으로 평가할 때 영국 산업혁명 동안 개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두 지표(실질임금과 평균 신장) 중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각 지표가 보여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두 지표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연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1]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글자 수 제한 없음, 50% 배점)

[가]

첫째 항 a_1 과 둘째 항 a_2 가 주어지고 $p+q+r=0$ 인 실수 p, q, r 과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등식

$$p a_{n+2} + q a_{n+1} + r a_n = 0$$

을 만족하는 수열 $\{a_n\}$ 이 있을 때 $q = -p - r$ 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p(a_{n+2} - a_{n+1}) = r(a_{n+1} - a_n)$$

즉, 등식

$$a_{n+2} - a_{n+1} = \frac{r}{p}(a_{n+1} - a_n)$$

을 만족하므로 $\{a_n\}$ 의 계차수열은 공비가 $\frac{r}{p}$ 인 등비수열이다. 이때 $a_{n+1} - a_n = b_n$ 이라 놓으면,

$$b_{n+1} = \frac{r}{p} b_n, b_1 = a_2 - a_1$$

이므로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b_n = (a_2 - a_1) \left(\frac{r}{p}\right)^{n-1}$$

이다. 그러므로 $n > 1$ 에 대하여

$$a_n = a_1 + \sum_{k=1}^{n-1} (a_2 - a_1) \left(\frac{r}{p}\right)^{k-1} = a_1 + \frac{(a_2 - a_1)(1 - (r/p)^{n-1})}{1 - (r/p)}$$

이다.